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 308호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홍보실
주소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대표전화 1577-7755

행복한 소통의 시작, 현대건설 이야기



2016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고 희망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청양의 기운으로 힘차게 역경을 돌파해 온 사우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에는 영민하고 모험을 즐기는 원숭이처럼 매너리즘을 벗고 슬기롭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나긴 어둠을 헤치고 세상에 빛을 선사하는 붉은 태양의 기운으로 사우 여러분이 펼칠 아름다운 투혼과 기적을 응원합니다. 현대건설 파이팅!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의 인공섬 상공 위로 아침 해가 뜨고 있다.



Photo News

The year 2015 has passed and a new one has just arrived. With a spirit of the Blue Sheep, all of us have weathered hardships throughout the year. Hyundai E&C wishes that you make new challenges by getting out of the rut in 2016 like the clever and adventurous Fire Monkey. We root for your efforts and miracles you will make around the world like the sun shining through the darkness. Go, Hyundai E&C!

① 터키 보스포루스 제3교 건설공사 현장 ② 사우디아라비아 쿠라야 IPP 연계 2차 송전선 현장 ③ 쿠웨이트 Oil Company NO.1 현장 ④ 카타르 국립박물관 신축공사 현장 ⑤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 900MW 복합화력발전소 현장 ⑥ 스리랑카 콜롬보 킬시시티 프로젝트 ⑦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 확장공사 현장 ⑧ 칠레 차카요 교량공사 현장 ⑨ 스리랑카 콜롬보 항만 확장공사 현장



현대건설 해외 현장의 아름다운 일출 풍경은 사보신문 페이스북(QR코드)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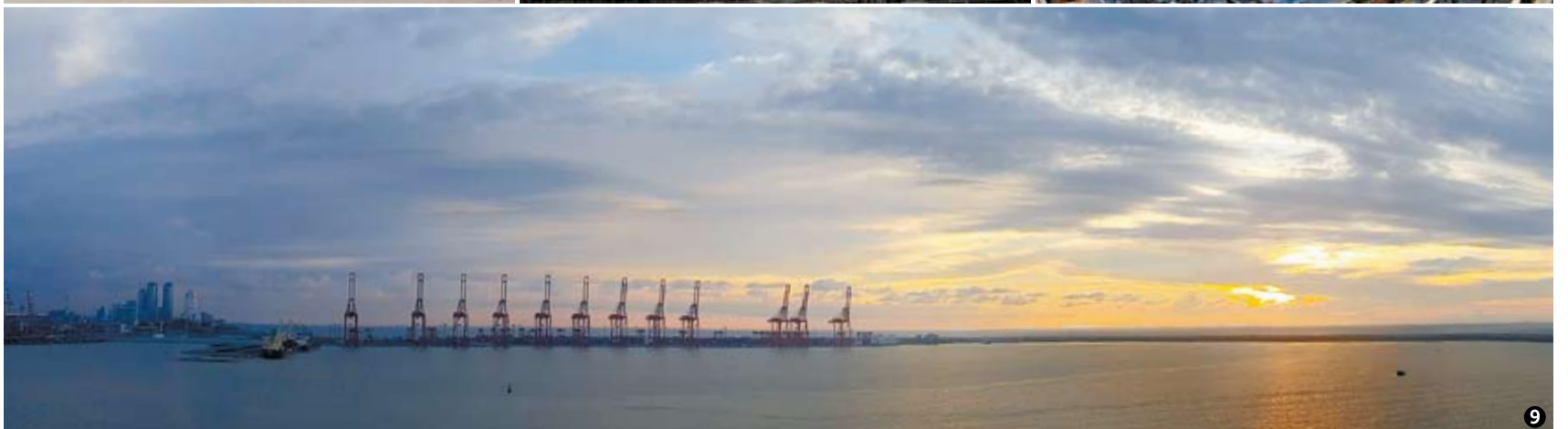
6



7



8



9

NEWS

- 현대건설 '명품 기술력' 인정받다
- 임직원 '사랑나눔기금' 3억4200만원 기탁
- 협력사 대상 투명윤리·품질 교육

그룹사 소식

기아차 공식 웹사이트, '2015 웹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기자자동차 공식 웹 사이트(http://www.kia.com)가 '2015 웹 어워드 코리아'에서 최고상인 PC 웹 최고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웹 어워드 코리아'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서비스 평가 상으로 디자인 및 기술,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 사이트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기업 일반 부문, 금융 부문, 제품 브랜드 부문 등 총 13개 부문 68개 분야에 총 706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기아차 웹 사이트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기아차는 고객에게 더욱 생생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 웹 사이트의 디자인, 기능 등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이노션,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 한국색채대상 수상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의 공간 마케팅 프로젝트를 담당한 이노션이 지난 18일 서울 도곡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열린 '2015 한국색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한국색채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색채학회 주최로 도시·주거환경, 건축·인테리어, 제품, 패션 등 8개 분야에서 매년 우수한 컬러 마케팅 사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우리 회사가 시공한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는 야구장 건축물의 내·외부 색채 계획을 통해 구단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뤄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장·부서 소식

싱가포르 워터타운 복합개발 현장 준공

싱가포르 워터타운 복합개발 현장이 지난 18일 착공 27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준공됐다. 싱가포르 동북부 풍골(Punggol)에 위치한 이 현장은 연면적 13만 3000㎡, 지하 5층~지상 2층 규모로 아이맥스를 포함한 11개의 극장과 대형 슈퍼마켓 등 총 150여 개의 용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MRT(지하철), LRT(지상경전철) 역사와 바로 연결돼 있어 우수한 교통요건을 갖췄다.



워터타운 복합개발공사 프로젝트는 소핑몰(waterway point)과 콘도(watertown)를 함께 개발해 왔으며, 콘도는 지상 12층~15층(6만 6000㎡) 992세대로 조성돼 2016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대곡~소사 복선전철·별내선 3공구 기공식

우리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대곡~소사 복선전철 현장이 지난 22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대곡역 광장에서 진행된 이날 기공식에는 부천시 오병권 부시장을 비롯해 정계 인사들과 우리 회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경의선 대곡역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경인선 소사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18.36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개통되면 고양시 대곡에서 부천시 소사 구간까지 지하철 소요시간이 67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된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구리광장에서 별내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의 기공식이 개최됐다. 이 사업은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를 잇는 총연장 12.9km 구간으로, 우리 회사는 총 1~6공구 중 3공구의 공사를 맡았다.



현대건설 '명품 기술력' 인정받다

2015년 기술형 입찰 수주 국내 1위

우리 회사가 올해 국내 기술형 입찰 공사 수주 최다관왕을 달성하며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터키·대안·기술제안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형 입찰은 기술 경쟁을 통해 공기 단축과 고품질의 시공물을 구현하기 위한 발주 방식이다. 우리 회사는 총 5건(토목 부문 4건, 건축 부문 1건), 2797억원 규모의 기술형 입찰공사를 따내며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첫 신호탄은 4월에 수주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였다. 이는 여수 세계박람회 빅오(Big-O-2012년),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공사(2013년) 등의 실적을 인정받은 결과다. 8월에는 8호선 암

사역과 경춘선 별내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2.38km 구간의 복선전철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를, 이어 10월에는 수자원 신성장사업에서도 기술력을 발휘해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공사'를 따냈다. 이 밖에 11일에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확장공사'를 수주하며 연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창원시 송도 해역 일원에 3만TEU급 컨테이너 부두 1선석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향후 발주 예정인 2-6단계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한편, 건축 분야에서도 지난 8월 에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확장공사(왼쪽)와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조감도. (오른쪽)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순 도급공사에서 벗어나 기술력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undai E&C recognized for its technological prowess

Our company has been recognized for its excellent technological capability by winning the most number of technology-related bids in the local market this year. Technological bids include turnkey basis projects, alternatives and technological suggestions aimed to cut back on construc-

tion schedules and secure high quality construction structures. Our company obtained five technology-related construction deals valued at 279.7 billion won this year, solidifying our position as a leading builder in this sector.

Starting with the Yeosu New North Port project to build counter facilities

in April, Hyundai E&C won an order in August to construct the 2.38-kilometer double track railway linking between Line 8 Subway Amsa Station and Byeolnae Station of Gyeongchun Line. Our company was also awarded an order for the facility stabilization of a water conduction tunnel of the Juam

Dam in October and received a deal to extend the West Container of the Busan New Port in December.

Based on our unrivaled technological capability for the construction of eco-friendly buildings, we received an order to build the Country Kiwoom Yeouido Building in August.

임직원 '사랑나눔기금' 3억4200만원 기탁

우리 회사가 지난 16일 임직원이 1년간 급여 끝전으로 모은 성금 3억 42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서울 중구 정동 소재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우리 회사 정희찬 상무, 임동진 노조위원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주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성금은 우리 회사와 현대종합설계 임직원 등 총 3227명이 1년간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금한 것이다.



성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난민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필리핀, 미얀마 복지지원사업' '수주 대상 개도국 태양광 랜턴 보내기 지원' '스리랑카

학교건립사업' '종로구 도시미관 개선사업' '재해구호 지원사업' 등 국내외 회사 연계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2010년부터 '사랑나눔기금'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금 누적액은 약 17억원에 이른다.

협력사 대상 투명윤리·품질 교육

우리 회사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본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투명윤리·품질 교육을 실시했다. 구매·외주협력사 총 742개사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우리 회사의 윤리·품질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협력사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투명·



윤리경영 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우리 회사 구매실 김재영 부대를 비롯해 3명의 부장이 강

사로 나서 '윤리경영의 중요성 및 위반사례 공유' '품질 경영의 중요성과 이해'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올해 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480개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업계 최초로 협력사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등 상생경영에 힘쓰고 있다.

힐스테이트 스타일러 수료식

우리 회사가 지난 17일 본사 5층 회의실에서 힐스테이트 스타일러 수료식을 했다. 이날 행사는 8기 힐스테이트 스타일러 주부 평가단 5명을 비롯해 우리 회사 김정철 건축사업본부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8기 힐스테이트 스타일러는 우리 회사의 모델하우스를 점검하고 타사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벤치마킹, 올 한 해에만 보조주방 재활용 수납장 등 총 476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약 50%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2008년에 출범해 올해로 7년째를 맞는 '힐스테이트 스타일러'는 상품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자문 역할을 담당해 우리 회사가 탁월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플랜트사업본부 박병동 상무보, 대통령 표창 수상

우리 회사 플랜트사업본부 박병동 상무보가 15일 열린 삼척LNG생산기지 1단계 건설사업 준공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박 상무보는 삼척생산기지 건설현장에서 성공적인 공사수행과 노조의 불법파업에 단호히 대처하고 발주처, 시공사, 협력사 간의 대화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상무보는 "삼척생산기지 현장은 근로자 동원이 워낙 힘든 외지여서 단가 상승의 어려움과 제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장 직원들이 합심해 성공적인 준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상은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설회사, 시공사를 대표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PHOTO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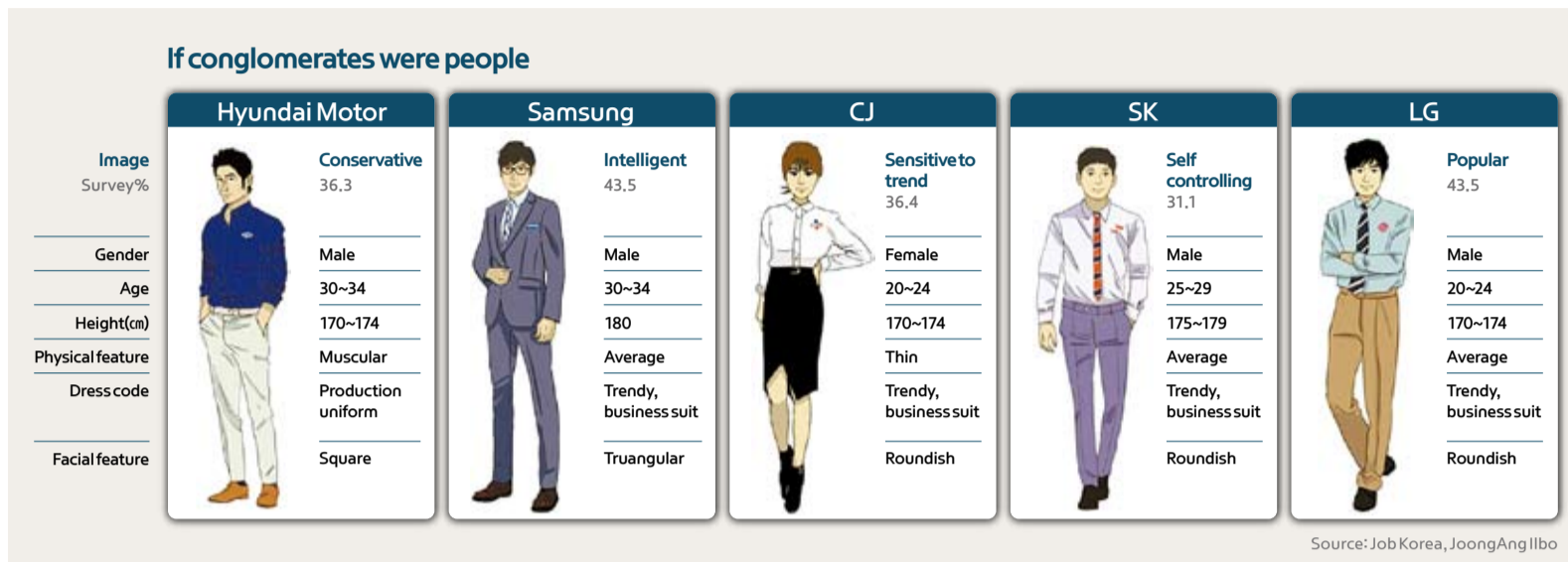
힐스테이트 배구단, 결연기관 아동 위한 '사랑의 요리교실' 열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이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꿈을 키우는 집'에서 생활청소년 25명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친목 레크리에이션, 일 요리교실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은 2012년부터 '꿈을 키우는 집'과 결연을 맺고 배구교실과 흥겨운 아이들을 초청해 선물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교류를 이어 왔다.

ISSUE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의 최신 뉴스를 (사보신문)에 연재합니다. 경제·건설·문화 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뉴스를 통해 생생한 비즈니스 이슈 및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자체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Students see the human side of a conglomerate



Dec 26

What would Samsung Group look like if it was a person?

According to a group of college students, the individual would be a male in his early 30s, about 180 centimeters tall (5.9 feet), dressed in a business suit and working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He would be intelligent, authoritative and cool-headed.

Job information provider Job Korea released the results of its survey earlier this week which involved 952 college students and their perceptions of

seven Korean leading conglomerates - Samsung, Hyundai Motor, CJ, SK, LG, Lotte and Posco.

The college students saw conglomerates that specialize in consumer goods and service businesses, such as cultural contents and media, as female. Such were CJ and Lotte Group.

In the case of Hyundai Motor the image of a conservative male was strong, with 92.6 percent of the students visualizing the leading automaker as a well-built male dressed in production uniform.

SK and LG were viewed as a unisex person that could pass off as either male or female with sophisticated looks. Still the image of a young male in his late 20s or early 30s was slightly higher.

The biggest factor in determining the image of a conglomerate was the CEO of the company as picked by 38.2 percent of the poll.

The second deciding factor or 36.3 percent pointed to the core business portfolios, whether it was heavily involved in IT or manufacturing.

Compared to a 2011 survey on the same issue, perceptions of Lotte changed the most. In 2011, people pictured a 171 to 175 centimeters tall female, aged about 30 to 34 year old, wearing casuals. However this year's image of Lotte changed to a 165 to 169 centimeters tall female, aged between 25 and 29 in a trendy fashion suit.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 24 to Dec. 5 and was participated by 952 female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four-year colleges in Korea.

대학생이 본 대기업의 이미지

만약 삼성이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대학생들은 키 180cm의 정장을 입은 연구개발(R&D)직으로, 지적이고 권위가 있으며 냉철함을 지닌 30대 초반 남성을 삼성의 이미지로 꼽았다.

취업정보 포털 잡코리아는 대학생 952명을 대상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CJ, SK, LG, 롯데, 포스코 등 한국 대표 그룹사 7곳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문화 콘텐츠, 미디어와

같은 소비재·서비스직 전문기업인 CJ와 롯데를 여성의 이미지로 보았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보수적인 남성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92.6%가 현대자동차를 생산직 유니폼을 입은 근육질의 남성으로 묘사했다.

SK와 LG는 세련된 외모의 남성 또는 여성의 이미지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38.2%가 기업의 CEO를 꼽았다. 다음으로 36.3%가 IT나 제조업과 같은 기업의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를 두 번째 결정 요인으로 지목했다.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롯데의 기업 이미지가 가장 많이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 당시 롯데의 이미지는 캐주얼 복장의 키가 171~175cm 인 30~34세 여성이었던 반면, 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행 정장을 입은 키

165~169cm 사이의 25~29세 여성으로 변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5일 사이 실시된 이번 조사는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9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Key expressions

authoritative: 권위적인
cool-headed: 냉정한, 침착한
sophisticated: 세련된, 교양있는

Moody's upgrades Korea's rating

Dec 21

Despite pretty dire outlooks for the economy next year, Korea received its highest-ever sovereign credit rating by an international agency, thanks to its fiscal resilience and reform efforts.

Moody's, one of three major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announced on Saturday that it upgraded Korea's rating from Aa3 to Aa2, the third highest out of 21 rating levels by the organization.

Moody's also changed its outlook from positive to stable.

The upgrade was made in eight months since April 10, when the agency changed its outlook for the country from "Aa3 stable" to "Aa3 positive."

"The key drivers of the upgrade

are Moody's expectations that Korea's credit metrics will remain strong and resilient compared to rating peers and that Korea's very high institutional strength will support continued implementation of structural reforms, further promoting economic and fiscal resilience," the agency said in a statement.

Among the G-20 nations, Korea has the sixth-highest credit rating after the United States, Germany, Canada, Australia and United Kingdom. France holds the same Aa2 level.

Korea has the highest average among Asian nations. Moody's has given China Aa3 and Japan A1.

Moody's noted that Korea's fiscal soundness is improving, making the country less vulnerable to external

factors.

External vulnerabilities continue to diminish, the agency noted, saying the country's income from international investments has grown since 2014 to reach \$191.7 billion as of September, adding to its international assets. That is the equivalent of about 14 percent of nominal GDP.

Korea's total external debt, at 30 percent of GDP in 2014, is at the lower end of its peer group, and the proportion of short-term external debt has fallen significantly to less than 30 percent of total external debt from around 50 percent in 2006 and 2007, it said.

"Relatively low levels of nonresident holdings of government debt, at less than 15 percent of the total, limit the

direct exposure of the government's funding profile to global financial market volatility," the agency said.

Choi Kyung-hwan,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and finance minister, said on Sunday that the upgrade by Moody's is "very meaningful" at a time when high market volatility is expected.

"The Moody's decision will serve as a bulwark for the Korean economy, which is expected to undergo low growth next year and face high market volatility as the U.S. has begun to raise its interest rates," Choi said at a press briefing held at the Seoul government complex in Gwanghwamun. "A higher credit rating may help prevent rapid capital outflow and continue economic recovery momentum."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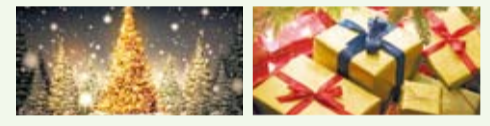


Q Describe the picture.

SAMPLE ANSWER

This is suitable picture for winter. I'm glad to describe this one.
This is a picture of some town. I think this town may meet Christmas.
There are lots of lights on trees and roofs. Many houses awake for Christmas evening.
People wear coats and enjoy their Christmas time. On the bottom of the picture, there are some stores and people are visiting them.
I also want to enjoy Christmas mood like them.
That's all I can see in this picture.

Picture Comparison 유형



Q Compare the two pictures.

SAMPLE ANSWER

I am glad to compare these two pictures.
Both are related to Christmas time.
On the left, there are some Christmas trees at snowy night.
In center, the tree has lots of lights on it. It twinkles so much that I could say it is yellow tree.
Another trees only have snow on.
On the right, there are some presents in gold boxes. They have red, blue and green ribbons on it. They are under the Christmas tree.
The presents are waiting for people.
I can feel Christmas and winter with these pictures. These pictures make me happy.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ENTERTAINMENT

'Reply 1988' sees record ratings

Dec 21: The cable drama series "Reply 1988" has consistently achieved higher ratings each week since its airing. The program's Saturday episode recorded 16 percent viewership, the highest ever in the show's history.

It was also the highest among all cable TV shows aired during the same time slot.

Even drama series on major broadcasters like KBS, MBC and SBS have barely earned such high marks in recent years.

The Friday-Saturday show, set in 1988, is the third season of the "Reply" series, which began in 2012. Unlike its previous seasons, which emphasized romance and relationships, the third season centers on family, which has attracted more viewers in their 30s and 40s.



FOCUS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사보신문)에서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대내외적으로 현대건설의 이름을 드높인 뉴스를 뽑았다. 글·정리=이희정



2015년, 사보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뉴스 7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2 미래 기술력 확보

* 기술형 입찰 국내 1위

우리 회사가 올해 5건의 기술형 입찰공사를 따내며 최다 수주 업체(건수 기준, 대표사로 등극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여수 신북항 외곽시설 축조 공사를 시작으로 벌내면 북선전철 3공구, 주암면 도수터널 시설안전화 공사,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확장공사 등 총 5개의 공사를 수주하며 기술력 우위를 다시금 확인했다.

* 세계 인명사전 연구원 4명 동시 등재

우리 회사가 올해 R&D 분야의 지열을 대폭 늘린 결과, 국내 최초로 『2016 마르퀴즈 후즈 후』 세계 인명사전에 네 명의 연구원이 동시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에서 매년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으로,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올해는 우리 회사 연구개발본부 지성현 부장대우, 김영오 부장대우, 서태식 과장, 문병욱 대리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기술개발 주력 - 글로벌 역량 강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를 가지적으로 볼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우리 회사는 올 초 연구개발본부를 인프라연구개발실·건축연구개발실·에너지환경연구개발실·R&D기획실 등 4개의 실로 새롭게 재편하는 한편, 연구 인원을 2013년 100명에서 현재 180명으로 2배로 늘렸다. 실제 우리 회사는 국내 건설사 중 최다인 5200여 명의 기술자가 근무하며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 우리 회사는 올해(12/22일 기준) 240건의 기술지원, 약 1030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 또한 연직피이프링 공법,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등 4건의 신기술을 획득해 총 신기술 14건, 녹색기술 5건을 비롯해 국내 특허 317건을 보유하고 있다.



5 일하는 방식의 합리적인 변화, 워크스마트 도입

2015년은 전자적으로 결한 '워크스마트 캠페인'이 결실을 맺은 한 해였다. 우리 회사는 합리적인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집중근무시간 운영 ▶업무 마감 스탠딩 미팅 ▶회의 진행 가이드 운영 ▶보고·결재 문화 개선 ▶업무 지시 메모지 활용 등을 실시해 사무생산성과 업무만족도를 동시에 높여 왔다. '워크스마트 캠페인'은 지난해 말부터 3개월에 걸친 직원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점검했고, 외부 컨설팅의 도움 없이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우리 조직에 맞는 5대 추진과제를 선정·진행했다. 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 3월부터 분사와 현장 간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워크스마트 본부별 개선 과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PRM사업부의 '모바일HSE 어플 기능 고도화', 전력사업본부의 '그물웨어 부서제시판 활성화'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과제는 사무사 때 CEO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3 힐스테이트 돌풍... 2만4000여 가구 분양

2000년대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이 쏟아진 치열한 분양시장에서 힐스테이트의 약진이 돋보인 한 해였다. 올 한 해 우리 회사는 전국에 2만 4000여 가구를 분양해 서울·수도권과 전국 요지에서 힐스테이트만의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우리 회사는 올 3월 왕십리뉴타운 3구역 '센트라스(CENTLAS)'를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금호, 힐스테이트 천계, 송파 팰리오시티 등 서울 시내 요지 분양을 모두 1순위로 마감했다. 지방에서도 힐스테이트 열풍은 뜨거웠다. 지난 9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일대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황금동'은 1977가구의 일반공급 물량 중 12만2563명이 청약해 평균경쟁률 622.1대 1의 경이적인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이는 올해 분양한 국내 아파트 중 가장 높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다. 이 밖에도 힐스테이트 세종2차, 창원 김해 힐스테이트 4차, 힐스테이트 태진, 힐스테이트 거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힐스테이트 평택 등이 지방시장 분양 흥풍을 주도하며 완판 행진을 이어갔으며, 힐스테이트 일산,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등 오피스텔 분양도 호조를 이뤘다. 우리 회사는 내년에도 올해의 흐름을 이어 고덕2·3단지, 개포주공 3단지, 힐스테이트 김해 옴하 등 1만 6000여 가구의 분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6 CSR 벽화그리기... 북촌 단장에도 앞장

우리 회사가 서울 가회동 주민센터와 1사동을 맺었던 인연으로 올해 처음으로 본사 인근 북촌 단장에 나섰다. 우리 회사 임직원 325명은 9월에서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북촌길 잡초 제거, 벽 전신주 광고물 제거 등의 환경미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재동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노후한 외벽에 지역 특색에 맞는 벽화를 그려놓았다. 특히 재동초등학교 벽화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살린 독특한 패턴으로 북촌 관광의 포토존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 밖에도 우리 회사는 사람나눔기금,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접수리로드 대학생 봉사단, 사랑의 제빵 만들기, 사랑 나눔 도시락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현장을 위치한 국가와 연계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 아프리카 우간다 전자, 우즈베키스탄 카르수 학교 교육 시설 개보수 등 현재까지 12개국, 16건에 달하는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7 국내의 대형 프로젝트 성공적 준공

대형 프로젝트의 준공 소식이 국내외 곳곳에서 들려온 한 해였다. 씨마크 호텔, 현대카드 뮤지 라이브러리,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사우디 잠파트 경기장 등 6여 개 현장이 우리 회사의 기술력으로 완공됐다.

* 최고난도의 비정형 건축물 설계가 빛나는 'LH타워'

3월 준공된 LH타워는 경남혁신도시 내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본관과 3개의 별관으로 이뤄져 있다. LH타워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보다 5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10만㎡ 이상 건축물 중 최고의 에너지 절감률을 자랑한다. 우리 회사는 이 타워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기반으로 한 첨단 건설관리 기법인 '사전 설계·시공 최적화 기법(Pre-construction Process)'을 적용했다.

* 국내 최대 단정간 현수교 '울산대교'

올 6월 정식 개통한 울산대교는 울산시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에 있는 총연장 8.38km의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5398억원이 투입됐다. 울산만을 가로지르는 울산대교는 두 개의 주탑 사이의 경간이 하나로 연결된 단정간 현수교로 국내 최장이며, 세계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우리 회사는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1960㎏ 초고강도 케이블을 사용하고 국내 최초로 PPW 기술 공법을 적용했다.

*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최초 진출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

27개월의 공사 끝에 지난 6월 준공식을 가진 현장은 코트디부아르의 행정·경제의 중심지인 아비장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24km 떨어진 요프공 지역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가스터빈 발전소 2기의 HRSG, 1기의 STG, 1기의 ACC, 기타 건설설비 시공을 통해 복합화력발전소로 확장하는 애드온 공사다.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는 아프리카 EPC 역사상 '전 공정 무재해'와 '계약 공기 준수'라는 대업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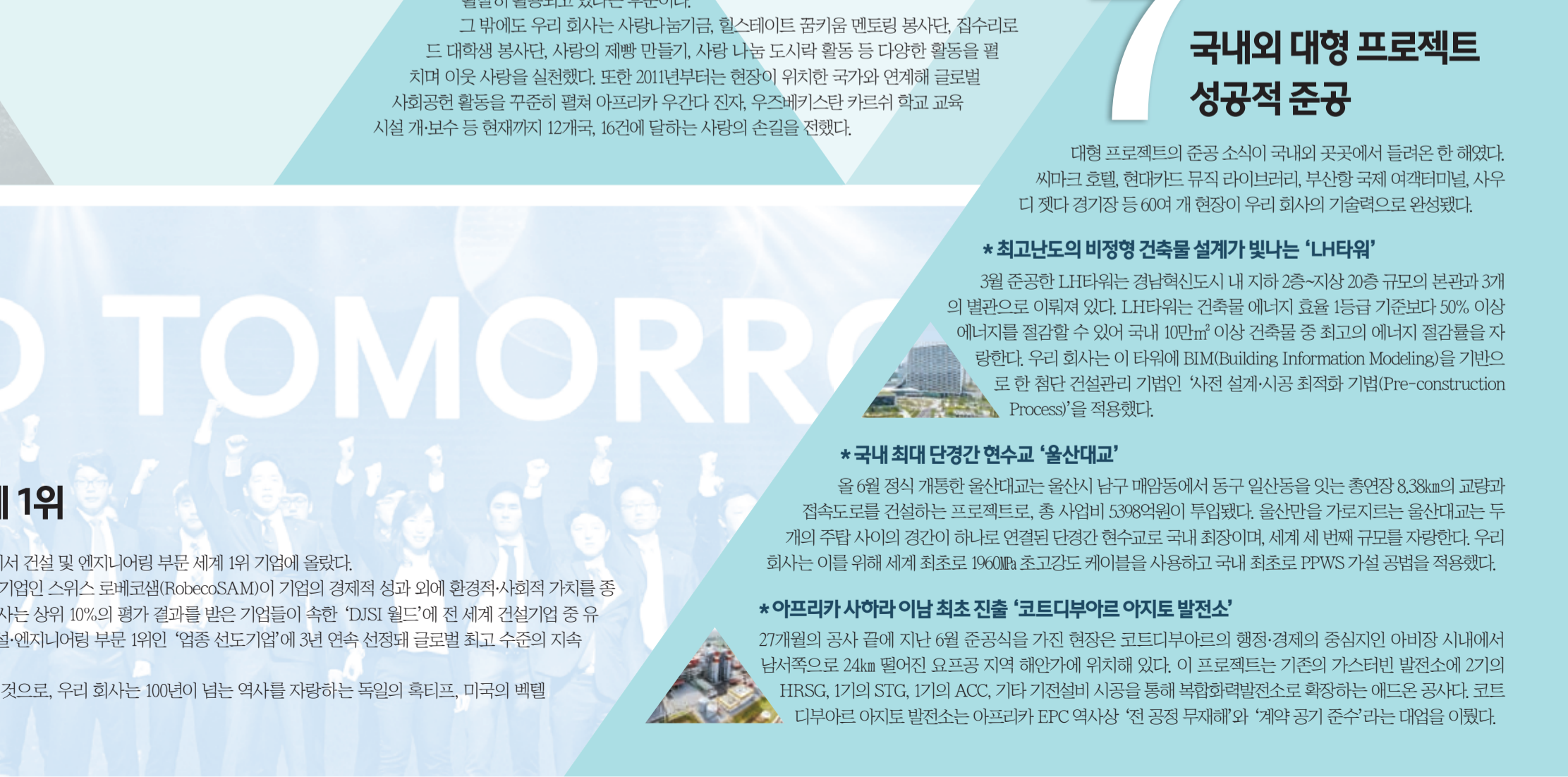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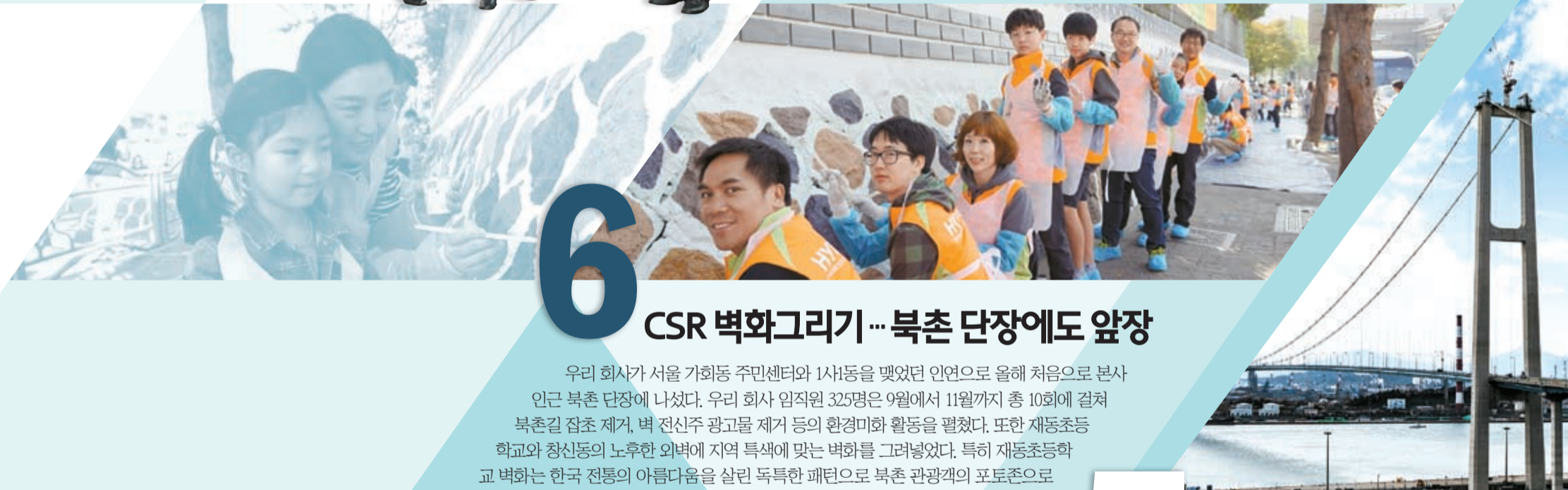
1 국내 중대재해 '0' (12월 27일 기준)

우리 회사가 올 한 해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총력을 기울여 국내 현장 중대 재해 발생률 0%를 기록했다. 안전사고 발생률 역시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는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데 상당기간에 660여억원의 투자를 결정한 결과다. 우리 회사는 올 한 해 ▶모바일 안전 애플리케이션 개선 ▶위험작업 플래시 교안 개발 ▶사내 그룹웨어 재해 현황 공지 ▶주말작업 사전승인제 ▶경영진 수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무재해 건설현장'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갔다. 특히 7월부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평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우수 안전관리 협력업체 임찰 참여 기회 확대 ▶계약이행 보증 감면 ▶자가심의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우수 안전관리 협력업체 발굴·지원에 힘썼다. 또한 현장 운영개선 피드백을 구성해 '안전예산 검토·점검' '안전 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 등을 실시하며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다. 우리 회사의 이러한 노력은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시작으로 창원 김해 힐스테이트 3차, 사우디 알사나빌 380MW 변전소 공사,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 확장공사, 부산전해 명지 지구 개발사업 2공구 등 9개 현장이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BUILD TOMORROW

4 현대건설, 지속가능한 기업 세계 1위

우리 회사가 올해 발표된 '2015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세계 1위 기업에 올랐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와 글로벌 투자 기업인 스위스 로베코SAM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 외에 환경·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투자지수로 세계적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 회사는 상위 10%의 평가 결과를 받은 기업들이 속한 'DJSI 월드'에 전 세계 건설기업 중 유일하게 2010년부터 6년 연속 편입됐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된 후 전 세계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1위인 '업종 선도기업'에 3년 연속 선정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DJSI의 업종 선도기업은 각 산업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우리 회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휴르프, 미국의 벨텍 등을 제치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될 건설기업으로 뽑히는 기업을 도했다.



HARMONY

최근 몇 년간 우리 회사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였다. 무조건적인 수주를 지양하고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해 수주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사보신문>에서는 전사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는 PRM팀을 만나 그들의 업무와 팀워크에 대해 들어봤다. 글=박현희 / 사진=오진태(벡앤미스튜디오)

우리 팀이 최고 PRM팀



① 이봉규 차장 ② 권영필 과장 ③ 서형덕 과장 ④ 정미연 사원 ⑤ 정경호 부장대우 ⑥ 김상훈 차장 ⑦ 변경현 팀장 ⑧ 장연정 차장 ⑨ 이동섭 과장 ⑩ 박근용 과장 ⑪ 정태혁 사원 ⑫ 김종대 차장

“현대건설 리스크 관리, 우리가 책임집니다.”

수익성과 손실의 접점에서 분투하다

우리 회사는 전사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3년 4월 PRM(Project Risk Management)팀을 구성했다. 원래는 기획본부 경영기획실 소속이었으나 2015년 초 프로젝트혁신본부가 PRM사업부로 바뀌면서 PRM팀 역시 PRM사업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현재 PRM팀에는 각 사업본부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12명의 최정예 멤버가 모여 있다.

“우리 팀은 저가 수주를 지양하고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주부터 수행까지 모든 단계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꾸려졌죠. 현재는 수주 단계의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수행단계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경현 팀장

PRM팀은 크게 ▶총괄 지원 ▶리스크 분석 ▶PRM 체계 구축 파트로 나뉜다. 총괄 지원 파트는 수주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실적을 관리하며,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리스크 분석 파트는 프로젝트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하며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PRM 체계 구축 파트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전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물론 PRM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각 사업본부에서 프로젝트 수주 심사 등 리스크 관리를 해왔어요. 하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모니터링이 잘 안 됐죠. 저는 PRM 체계

구축 파트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전사 차원에서 통일되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권영필 과장

“현재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손실을 줄이는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 회사는 적자를 면했지만, 지난해 빅5 건설사가 대부분 손실을 낸 것은 해외 저가 수주에 대한 타격 때문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오래 전부터 수주심사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주체가 따로 없다 보니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못했죠. 우리 팀이 수주심사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을 맡은 후로 심사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대 차장

프로젝트 수주 심사를 전담하다 보니 각 사업본부 영업팀에서는 PRM팀이 부담스러운 조직이 아닐 수 없다. 때로는 ‘판지’ 거는 팀으로 오해받기도 한다고.

“수주 관련 유관 부서에서는 PRM팀을 불편해하기도 하더군요. 우리도 회사 실적을 위해 일하는 팀인데 말이에요. 수주를 막기만 하는 팀이 아니라는 걸 지면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경호 부장대우

“맞아요, 우리 팀은 회사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요. 수익성과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하는 거죠.” 박근용 과장

업무의 특성상 크고 작은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수주 시 더욱 꼼꼼하게 타산을 살피게 됐다는 유관부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뿌듯함을 느낀다.

“리스크 분석이 제대로 안 된 프로젝트는 수주 승인을 내지 않다 보니 사업본부에서도 꼼꼼하게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팀으로 인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정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변경현 팀장

“우리 팀은 영업 조직이나 타 사업부서처럼 수익을 내지는 않아요. 리스크 관리는 실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 팀이 리스크를 막는 든든한 보호장치를 만들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수익은 못 내도 손실을 줄인다는 공지가 있죠.” 이봉규 차장

리스크 관리의 베테랑들이 뭉쳤다

PRM팀은 두 명의 사원 외에는 모두 과장급 이상이다. 팀 업무의 특성상 프로젝트 경험이 다수 있어야 하기 때문. 대부분 현장과 견적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지만 업무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해 자기개발에도 열심이다.

“일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해외 선진 기술사의 입찰서를 검토하면 국내외 기술과 경험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구글링을 통해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차장

“저는 좀 더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재육성시스템에서 사이버 강의 를 1년에 40학점 이상 듣고 있어요. 책도 40권 이상 읽고 있고요.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건 두루 접하려고 합니다.” 박근용 과장

“제 경우엔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역량



개발이 되더군요. PRM 구축 분석을 위해서는 사례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해외 선진사의 사례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들과 협업한 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었죠. 국내의 건설 회사도 다 돌았고요. 열심히 발품을 판 게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어요.” 권영필 과장

“팀 내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다른 팀원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예를 들어 김종대 차장은 견적 전문가예요. 박근용 과장은 법학박사죠. 팀 내부에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내부 교육만으로도 역량이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팀의 장점입니다.” 정경호 부장대우

업무에 자기개발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들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회식을 한다. 가볍게 맥주잔을 기울이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PRM팀의 소통 방법. 변경현 팀장은 각 사업본부에서 모인 팀원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한 팀으로 묶이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 했어요. 회식도 종종 하고, 함께 산행도 다

리면서 조금씩 팀워크를 쌓았죠. 우리 팀만의 특별한 이벤트라면 각 팀원들이 매 주 칭찬받을 만한 직원을 선정해 저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직은 저만 알고 있지만, 송년회 때 그 결과를 발표하고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웃음).” 변경현 팀장

회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PRM팀 팀원들에게 2016년 계획을 물었다. 팀원들은 입을 모아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자기 사업이라면 100원, 1000원도 챙겨 보듯이 모든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다.

“PRM팀은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팀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회사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등산으로 비유하자면 2015년은 산에 막 오른 단계예요. 2016년은 야마산 중턱에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 땀 흘리고 있겠죠. 내년에는 수주부터 수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할 겁니다. 현장에서 챙겨야 할 서류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각 사업본부에서도 지켜봐 주세요. 2016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변경현 팀장



‘내가 주인이다!’라는 마인드로, 현대건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COLUMN

생각의 좌표 호모 디క్ష너리쿠스

사전만큼은 두껍고 먼지 나는 종이책을 고집할 생각이다. 단어를 손으로 만지고, 그림으로써 세상과 나의 관계를 촉각하고 싶기 때문이다.

전세가 폭등으로 슬슬 이사를 궁리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근심스러운 눈길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책장이다. 1인 세대주인 내가 이삿짐센터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고객인 까닭은 책이 많아서다. 그중에서도 각종 사전 및 참고서 지류가 제일 무거운 골칫거리다. 그래도 나는 시효가 다한 해묵은 가이드 북-예컨대 1994년 판 <열려라 비디오>-이나 개정판도 여럿 나온 사전들을 버리지 못한다. 과거 저자의 해석을 돌아보는 격세지감의 재미를 포기할 수가 없다. 고백하건대 나는 다른 어떤 부류의 책보다 사전에 애착한다. 아니, 의존한다는 표현이 진실에 가깝다.

하는 퍼즐 조각이기는커녕 갈등하고 모순을 빚기 위해 존재했다. 낙망한 나는 사전에 한층 집착하게 됐다. 사전은 관점이 상이한 세상 모든 저자들이 공히 사용하는 단어와 팩트를 정련해 묶어 놓은 책이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백과사전과 국어사전으로 출발한 나의 사전 컬렉션(?)은 세월과 더불어 사방팔방으로 불어났다. 글을 쓰는 직업은 부족한 어휘와 허약한 문장, 알팍한 지식에 대한 자격지심을 가중시켰고, 나는 초조한 현대인답게 쇼핑으로 불안을 무마했다.

<세계 신화 사전>부터 없는 단어 발명하는 특권을 지닌 작가들로부터 거꾸로 채집된 <소설어 사전>이나 <시어 사전>, 검색엔진이 없던 시기에 잡지 기사를 작성하는 데 지대하게 공헌한 <가상 인명사전>과 <영화 기술용어 사전>, 그림읽기의 단어장 격인 <회화 도상 사전>까지 다양한 사전들이 속속 책장에 입주했다. 급기야는 아예 표제어를 모르는 경우를 위한 사전까지 장만해 만전을 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름하여 <세계만물그림사전>이라는 책이다. 가령 자동차 창과 차체 사이의 테두리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CD에서 데이터가 기록되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는 무엇인지, 만국공통어인 그림을 제시하고 5개 국어로 알려주는 이 목적인 책이 배달된 날은 방탄조끼라도 마련한 양 든든했다.

아날로그 사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건조함과 무감동이야말로 사전 고유의

'하드보일드'한 매력이다. 한데 사전이 한 권 두 권 늘어나다 보니 소설 못지않은 재미와 감흥을 사전에서 느끼는 경우도 생겼다. 크리스토퍼 서프와 헨리 비어드가 쓴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 사전>(1992)은 일상에서 무심히 사용하는 어휘의 편향을 꼬집는 동시에 완곡어법의 극치를 보여줘 큰 웃음을 줬다. 2001년에 페이스 팜콘과 아담 한프트가 펴낸 <미래 생활 사전>은 다가올 21세기에 등장할 용어를 삶의 영역별로 상상해 정의한 사전으로, 평범한 독자조차 읽는 동안 여남은 편의 SF소설과 영화를 구상하도록 부추긴다.

한편 시적인 영감을 주는 사전도 있다. 다음은 대중적인 의학용어 해설집에 해당하는 후안 고메즈의 <증상사전(A Dictionary of Symptoms)> 중 '피부' 항목의 일부다. "피부는 상처받았을 때 스스로를 치료하는 수백만의 포개진 비늘로 구성된 당신의 감옥이다. 그것은 당신의 방수재이다. 비가 내려 뇌나 근육이 젖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피부는 지방층으로 가장자리를 댄 당신의 외투이며 나이와 함께 얇아져 노인에게 추위를 느끼게 한다." 그저 정의일 뿐인데 마음속에 파문이 일었다. 애초에 영화 속 인물이 않는 질병의 속성을 확인하러 이 사전을 열었던 나는 처음 계획과는 아주 다른 문장을 쓰기에 이르렀다.

나는 출장지의 작은 헌책방에서 3500원 정도의 값을 치르고 <증상사전> 역시 구입했다. 사람들이 종이사전을 처분하고 가볍고 편리한 웹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단어의 정의를 검색하는 시대가 오

면서 중고 서점의 보물은 부쩍 늘어났다. 알고 싶은 단어를 찾기까지 엉뚱한 페이지를 배회하며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종이 사전이 아니었다더라면 나는 결코 우연한 영감에 의한 글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 라디오에서 <행복한 사전>이라는 14년에 걸쳐 종이사전을 편찬한 사람들에 관한 영화를 소개한 후, 한 청취자의 의견을 받았다. 요컨대 언어의 생명을 따라가기에 종이사전은 턱없이 느리므로, 사전 편찬의 수공업적 성실성을 예찬하는 이야기는 퇴행적이라는 일리 있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문제의 신규 '콘텐츠'도 궁극적으로는 누군가 써야 한다. 훈련된 언어 감식이 집단의 토론이나 문체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수 없다. 이른바 '집단지성'으로도 대체 불가능하다. 나는 장차 다른 모든 책을 e-book으로 대체하는 날이 오더라도 사전만큼은 두껍고 먼지 나는 종이책을 고집할 생각이다. 단어를 손으로 만지고, 그림으로써 세상과 나의 관계를 촉각하고 싶기 때문이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혜리
<씨네21> 기자



만사형통 지침서, 사전

초등학생 시절 백과사전 전질이 집에 들어온 날 느낀 기고만장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온 세상을 손에 넣었다고 믿었다. 이제 뭐든 모르는 것과 부닥치면 가나다순으로 책장을 넘기기만 하면 된다. 설명 중 아리송한 개념이 있으면 다시 그 항목을 찾아가면 만사형통이다! 앞서 간 세대의 시행착오와 발견이 모조리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째서 어른들은 오류를 반복하며 세상을 더 빨리 개선하지 못하는지 의아했던 나이였다. 물론 오래지 않아 나는 알게 되었다. 세상의 무수한 책들은 서로를 보완하며 정답을 완성

계동 산책 “우리가 직접 천연 효모 만들죠” ... 원재료 맛 살린 건강빵집

롤링핀(복촌점)

3년 전 테이블 하나 없는 압구정동 동네빵집에서 시작해 전국 27곳에 매장을 둔 프리미엄 건강빵집 '롤링핀'이 지난 11월 복촌에 자리를 뒀다. 우리 회사에서 중앙고등학교 방면 계동길로 가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소소한 상점과 식당 사이 제법 규모가 다른 건물 하나가 눈에 띈다. 이곳은 계동에서 1개월 된 신생 빵집이지만 문턱은 오가는 손님들로 붐볐다. 글=김만화 / 사진=송성훈, 롤링핀 제공



롤링핀(복촌점)은 여느 제과 가맹점과 달리 규모부터 달랐다.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총 324㎡(98평)에 옥외에는 루프톱이 있다. 지하 1층은 사무실로 쓴다. 1층과 2층, 루프톱에 놓인 테이블 수는 모두 합쳐 25개. 규모에 비해 테이블 수는 적은 편이다. 길영에 대표는 “오시는 손님에게 집에서 쉬듯이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매장 1층에 들어서니 갖 구워낸 구수한 빵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롤링핀에서는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30분 간격으로 빵이 나온다. 식빵 8가지, 차아바타 3가지, 프레첼 2가지, 바게트, 베이글, 페이스트리 등을 포함하면 종류만 총 35가지다. 점장에 가장 많이 팔리는 빵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압구정 식빵’이라 했다. 압구정동에 1호점을 연 직후부터 이 빵이 롤링핀의 스테디셀러 품목이 되었다. 설명판에는 ‘졸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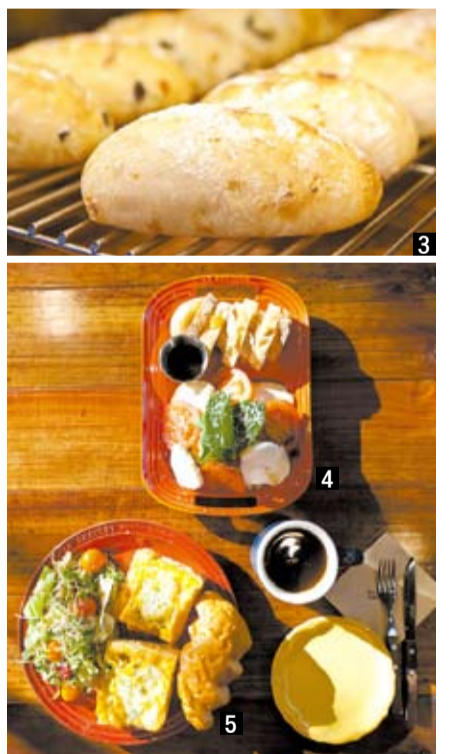
하고, 팔이 들어간 대표상품’이라고 적혀 있다. 더블치즈 블랙식빵도 자주 찾는 빵이다. 오징어 먹물로 반죽한 빵에 에멘탈 치즈와 롤 치즈를 넣은 식빵이다. 자색고구마를 넣어 달콤한 맛과 영양소까지 챙긴 바이올렛 고구마 식빵도 인기가 좋다. 가격은 모두 4000원 선.

빵 맛을 좌우하는 제과 기술도 주목할 만하다. 사과를 이용한 천연발효종(효모)을 직접 배양해 쓰는데, 반죽에 효모를 섞은 뒤 24시간 이상 저온에서 숙성한다.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과장이 직접 숙성된 반죽을 차낸다. 효모로 오래 숙성시켜 만든 빵은 특유의 향과 감칠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이지선 점장은 “빵을 먹고 소화시키기 힘들었다고 하는 고객들이 우리 가게 빵을 먹고 속이 편해졌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천연 효모 성분이 소화를 일부 돕는 것”이라고 말

했다. 빵이 판매대에 오르면 빠른 속도로 완판된다. 그날 구운 빵은 그날 판매하면 끝이다. ‘슬로 브레드(Slow Bread)’인 까닭에 미리 생산량을 정해 놓고 빵을 굽는다. 빵 안에 호두, 블루베리 등 슈퍼푸드를 재료로 섞어 디저트 용이 아닌 식사 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음료에도 정성을 다한다. 커피는 저가 원두 대신 케냐-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 만델링-콜롬비아산 재료만 엄선해 만든다. 8년간 카페 운영 경력에 걸맞은 대표를 포함해 바리스타 출신 직원들이 커피를 직접 뽑는다.

프레첼, 페이스트리 등 입을 유혹하는 베이커리 외에 브런치도 빠뜨릴 수 없다. 롤링핀의 브런치는 총 5가지. 기존 2종에는 햄&모차렐라 샌드위치, 스파이시 슈림프 샌드위치에다 ‘잭 더 페퍼’, ‘크로크 앤젤’, ‘오늘은 카프레제’ 3가지 신메뉴가 이번에 추가됐다. 브런치 메뉴는 당일 제조된 빵과 유기농 식재료를 쓴다. 250도 이상 오븐에서 나온 식빵에 볶은 양파와 양송이를 가득 채운 크로크 앤젤이 베스트 메뉴. 브런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모두 1만 원대에 즐길 수 있다.



1 웨스턴 빈티지 콘셉트로 꾸며진 매장 내부 2 팔과 참살로 만든 압구정 식빵 3 천연 효모 방식으로 갖 구워낸 빵 4 신선한 토마토와 유기농 채소를 가득 담은 '오늘은 모차렐라' 5 양송이와 치즈를 듬뿍 넣은 '크로크 앤젤'

*계산 시 사원증이나 명함, 쿠폰을 함께 제시하면 두 가지 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창덕궁1길 38(계동)
문의 02-747-1057
영업시간 오전 7시30분~오후 10시30분(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30분(토·일·공휴일)

special event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특별 이벤트
빵전 품목 30% 할인
브런치제외 / 2016년 1월 1일 ~ 20일까지

special event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특별 이벤트
아메리카노 2900원
2016년 1월 1일 ~ 2월 29일까지

PEOPLE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에 오른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히말라야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린다. 히말라야 등반 중 생을 마감한 동료의 시신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난 그의 이야기는 최근 영화화됐다. 글=박현희 / 사진=오진태 (팻앤미스튜디오), 엄홍길휴먼재단 제공



만나고 싶었습니다

영화 개봉으로 주목받은 휴먼 스토리

산악인 엄홍길, 내가 히말라야에 오르는 이유

목숨 건 등정... 산쟁이의 숙명

지난 23일, 엄홍길 대장 인터뷰를 위해 엄홍길휴먼재단 사무실을 찾았다. 두 손을 합장해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 그는 어딘가 친근한 모습. 나마스테는 '당신의 신에게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뜻이라고 했다. 인터뷰의 첫 질문은 역시 영화 <히말라야>에 관한 것이었다. 영화는 현재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히말라야>를 통해 2005년 엄홍길 대장이 이끈 휴먼원정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년 전 일인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 꼭 1년 전, 그리고 한 달 전에 다녀왔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영화를 보며 그 당시 상황으로 감정이 빨려들어가는 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황정민 배우가 저를 잘 연구하고,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동료들은 꼭 저를 보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웃음).

산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슬픔을 느낄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속 박무택 대원은 특별히 아끼던 동료였다고요.

너무나 슬픈 것이 등반 중에 동료를 잃었을 때예요. 박무택 대원은 저와 같이 8000m를 넘는 등반해 성공했어요. 수없이 생사를 넘나들었죠. 영화에 장면도 나오지만 칸첸중가 8580m 정상에 향해 올라갈 때 깎아지른 절벽에서 자세 한번 못 바꾸고 10시간을 넘게 앉은 채로 비박을 했어요. '졸면 죽는다'는 각오로 버텼고, 여명이 밝아오르며 태양이 떠오르자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죠. 태양의 온기를 느끼며 기어서 정상에 올라 겨우 내려왔어요. 그런 과정을 무택이와 겪으며 사이가 더욱 각별해졌죠.

▶ 박무택 대원이 설맹(강한 빛이 눈(雪)에 반사되면서 자외선으로 인해 각막이 손상됨)으로 조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휴먼원정대를 꾸렸는데, 이는 세계 산악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택이는 8850m 지점,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 정상 직하에 매달려 있었어요.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그곳에 있는 시신을 운반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다가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면 어쩌나 불안했죠. 막연했지만 한국 산악인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고, 어떻게 해서든 얼어붙어 있는 후배의 시신을 뜯어내 끌어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휴먼원정대를 조직했어요. 시신을 찾아 무택이 얼굴을 봤는데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한국에 너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 가야지 네가 왜 추운데 여기서 이라고 있느냐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영화와 실체는 얼마나 다른가요?

다큐멘터리처럼 실화를 그대로 재현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바다예요. 무택이 어머니는 겨우내 방에 불을 안 땀어요. 아들이 추운 곳에 매달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 자겠느냐고요. 가슴이 미어져요. 영화는 픽션이 가미됐지만, 중요한 사건은 사실과 같아요.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것은 '산쟁이의 숙명(영화속 대사)'같은 걸까요?

그렇죠, 히말라야 8000m 위는 '신들의 영역'이라고 불려요. 그곳에서 인간의 의지대로 되

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심도, 사심도 모두 내려놔야 하죠. 산이 받아줘야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곧 산이 돼야 해요. 물론 임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산에 오르고 있지' '힘들다' '포기할까' '쉬었다 갈까' 등 마음의 소리도 들리죠. 그걸 이겨내야 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히말라야 오지에 학교를 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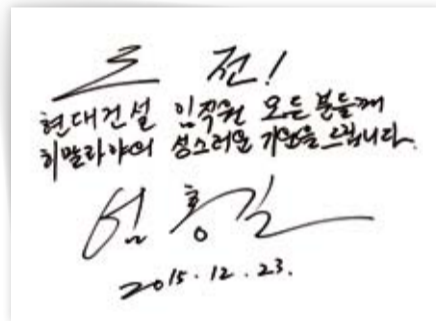
산악인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룬 지금, 엄홍길 대장은 또 다른 '산'에 오르는 중이다. 바로 히말라야 오지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 휴먼스쿨(학교)을 세우는 것.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엄홍길휴먼재단을 설립해 네팔에 학교와 병원 등을 건설하고 있다.

히말라야에 학교를 짓고 있다고요.

산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예요.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산이 허락해야만 가능하죠. 정상만 바라보던 제가 어느 순간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어린 아이들이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대물림하는 것을 보며 무척 안타까웠죠. 매년 8000m 이상의 산에 오를 때마다 히말라야 신에게 약속했어요. 네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재단까지 설립하게 된 거죠.

히말라야는 얼마나 자주 가나요?

학교 기공식, 준공식에 꼭 참석해요. 현지 조사, 네팔 지부 체크, 기존 현장 점검 등을 위해서도 가죠. 1년에 5~6번 정도 가고, 한 번 갈 때마다 7~10일간 있다 와요. 히말라야 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지에 학교를 짓는 것은 인생의 제2 목표고 도전이에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엄대장님과 의 산행을 한 번쯤 꿈꿀 것 같습니다. 함께 산행하길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저와 산행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엄홍길휴먼재단의 후원자가 되는 거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후원자들과 함께 정기 산행을 진행하니 엄홍길휴먼재단에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웃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낸다는 점에서 현대건설과 비슷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 엄대장님이 우리 회사 직원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현대 '건설'이잖아요. 건설사가 책상 앞에서만 일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저는 온갖 오지 현장에 다 다녔을 것 같아요. 남들이 안 가본 곳을 개척해낸다는 건 멋진 일이지. 삶이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한 해가 저무는 시점입니다. 현대건설 직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자승최강(自勝最強)',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사랑한다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겁니다. 경기 침체로 한국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의 어려움이 성장의 자양분이라는 생각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히말라야의 성스러운 기운을 현대건설 직원들에게 드립니다. "히말라야, 氣!!"



1 칸첸중가 정상에서 엄홍길 대장. 2 함께 히말라야를 오르며 동료애를 나누는 엄홍길 대장(왼쪽)과 고 박무택 대원. 3 네팔 휴먼스쿨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CULTURE

2015년도 불과 1주일 남짓 남았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을까. 2015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올해에도 TV 앞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스타들, 그리고 방송계의 핫 이슈들을 정리했다. 글=강명석 (아이즈) 편집장, 사진=MBC, tvN, 중앙일보 제공



되돌아본 2015 방송계 달군 4대 이슈

쿡방 전성시대

요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송, 또는 요리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 JTBC <냉장고를 부탁해>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쿡방'의 유행은 1년 내내 지속됐다. 토크쇼에서는 셰프들이 출연해 요리를 선보이고, 드라마에서는 셰프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특히 <냉장고를 부탁해>는 다양한 캐릭터를 지닌 셰프들이 15분 안에 요리를 완성해야 한다는 설정으로 긴 박감을 더했고, 여기에 재밌는 토크가 곁들여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요리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았다. 퇴근 후, 출출할 때 TV에 나오는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쿡방의 주인공, 셰프들의 인기가 치솟은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중에서도 일찍이 외식업계에서 성공을 거둔 사업가이자 요리 연구가 백종원은 올해 전국민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과 tvN <집밥 백선생> 등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은 단숨에 인기를 얻었고, 그가 프로그램에 출연해 쓴 재료들은 마트에서 '백종원 양념장'과 같은 이름을 붙여 판매했을 정도다.

무엇보다 그는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누구나 집에 있을 법한 재료로 쉽게 요리하는 법을 선보이면서 요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요리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먹게 만들었다. 그를 비롯해 최현석, 이연복 등 셰프들은 올해 한국인의 식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도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기존 방송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기점으로 스튜디오나 제작진의 카메라 앞에만 있던 방송인들은 실제 세계의 시청자들과 만나게 됐고, 그들은 시청자들의 '잼'(재밌음)과 '노잼'(재미없음)을 눈앞에서 평가받았다. 새로운 세대의 방송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특히 인터넷 방송은 연예인과 비연예인의 경계를 허무는 계기가 됐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코미디언 박명수는 이렇다 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 네티즌들에게 '노잼'이라는 말을 계속 듣고 충격에 빠졌다. 반면에 백종원, MBC <복면가왕>에서 출연자들이 쓰는 가면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황재근, 헤어 스타일리스트 차홍 등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하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인터넷 방송이 TV 바깥의 콘텐츠를 즐기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을 가져온 TV 프로그램은 연예인과 비연예인의 경계를 허물면서 더 많은 사람을 스타로 만들었다.



인터넷방송, TV를 흔든다

출연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해 방송을 하며 직접 시청자들을 모은다. 인터넷 1인 방송을 TV로 옮긴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단순하지만 대담한 발상을 실행에 옮겼고, 이것은 TV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새롭게 부상하는 인터넷 방송이 지상파를 통해 공개되던 서 인터넷 방송을 즐기던 10~20대 시청자들의 공감

응답하라! 복고의분

세 번째에도 다시 히트했다. tvN <응답하라 1988>은 <응답하라 1997>과 <응답하라 1994>에 이어서 또 다시 히트했다. 1988년의 서울 쌍문동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이전의 시리즈들이 그렇듯 그 시절의 노래를 비롯한 각종 대중문화를 보여주고, 가족과 이웃의 정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이런 옛 시절에 대한 향수는 대중음악계까지 영향을 주면서 지난해 말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가 1990년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 것을 비롯해 <복면가왕>,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한 디자이너 황재근.



JTBC <히든싱어>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1980~90년대 음악을 소재로 하며 '복고' 붐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혼성그룹 쿨과 코요태가 팀을 합쳐 '쿨요태'라는 이름으로 인기몰이를 했고, 댄스그룹 티보는 김종국을 주축으로 함께 활동한 적이 없는 마이키와 김정남이 3인조로 재결합, 음원차트에서 1위를 거머쥐었다.

특히 티보의 6집 타이틀곡 '다시'는 유재석이 피쳐링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김종국이 유재석과 <런닝맨>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것을 생각하면 예능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그 시절 음악에 대한 붐이 완결을 맺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2016년도 사람들은 추억의 노래들에 '응답'할까.



'차이나머니'의 힘

SBS <런닝맨>은 올해 시청률이 많이 하락했다. 과거 10% 이상을 기록하던 인기 프로그램이 이제는 4%대를 기록할 정도다. 그러나 <런닝맨>이 폐지될 일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총 200여 명이 출연하는 게임을 벌이기도 했다. 이것은 <런닝맨>이 중국에서 얻고 있는 인기 때문이다. <런닝맨>출연자들은 종종 중국과 대만 등으로 가서 팬미팅을 하는 등 엄청난 스타 대접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톱스타인 김수현이 출연한 KBS <프로듀사>는 중국에 입도선매됐고, 한국에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을 만들던 제작진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일도 많아졌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들의 중국 진출은 <런닝맨>에서 보듯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MBC <일밤>의 '복면가왕' 역시 중국에 진출했고, 가수 김경호는 중국판 <복면가왕>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제 지상파 방송사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TV에는 중국 방송사의 일일 시청률이 게시될 정도다. '차이나머니'는 방송계에서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SBS <런닝맨>의 중국판인 저장TV의 <달려라 형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올해의 TV 프로그램



1위 MBC <무한도전>

MBC <무한도전>이 선호도 12.8%로 작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무한도전>은 지난해 14일 정형돈이 건강상 이유로 하차한 후 5인 체제로 진행 중이다. 최근 '자선경매쇼-무도드림' '불만제' '무도뉴스' 등 코너를 잇따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다.

2위 tvN <응답하라 1988>

1980년대 추억과 감성을 일깨우는 tvN <응답하라 1988>이 선호도 9.3%를 기록해 12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2위를 차지했다. 비정상과 드라마가 2위까지 오른 것은 지난해 12월 tvN <미생> 이후 1년 만이다.

3위 MBC <내 딸, 금사월>

극 중반부를 달리고 있는 <내 딸, 금사월>이 4.5%의 선호도를 올리며 3위를 차지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 금사월(백진희 분)이 복수와 증오로 완전히 해체된 가정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스토리를 담았다. 지난 27일 방영된 34회는 32%(닐스코리아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4위 SBS <육룡이 나르샤>

SBS <육룡이 나르샤>가 4.4%의 지지를 끌어올리며 4위를 차지했다. <육룡이 나르샤>는 이방원(유아인 분), 정도전(김명민 분), 분이(신세경 분), 명새(변요한 분), 무휼(윤균상 분), 이성계(천호진 분) 여섯 인물이 조선 건국을 개국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5위 KBS2 <부탁해요, 엄마>

2.5%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 진애(유진 분)가 두 명의 엄마 산육(고두심 분)과 영선(김미숙 분) 사이에서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두 엄마 모두 가족으로 끌어안는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올해 예능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일밤> '복면가왕' (MBC, 2.5%), <삼시세끼> (tvN, 2.5%),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KBS2, 2.5%)가 <부탁해요, 엄마>에 이어 공동 5위, 장수 예능 <해피선데이> '1박 2일' (KBS2, 2.3%)과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SBS, 2.3%)이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기간 2015년 12월 15일 - 17일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
(2개 까지 자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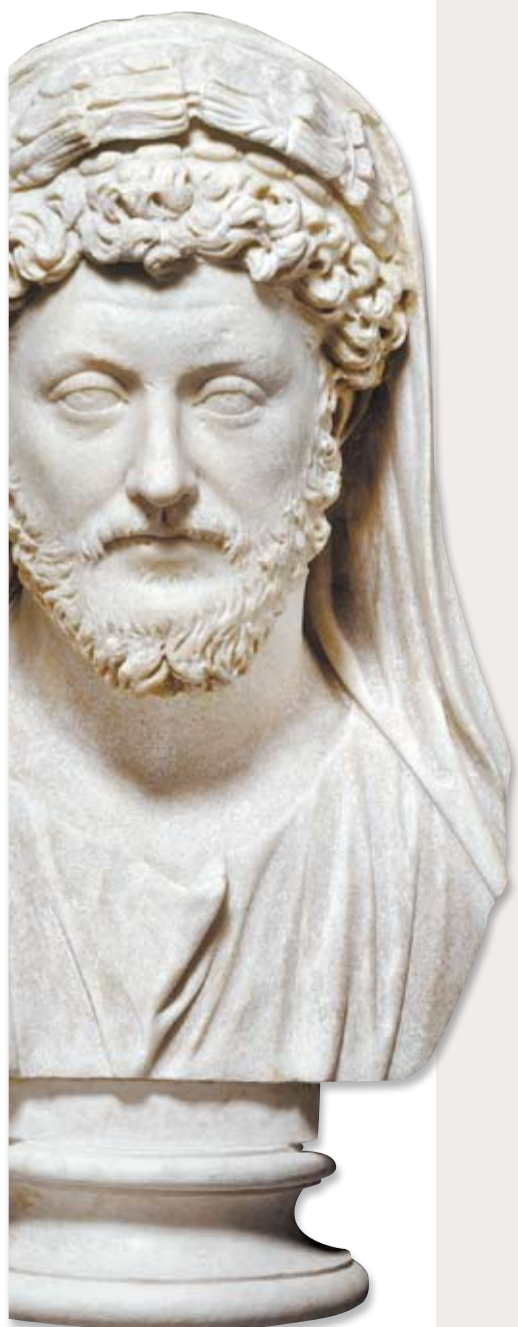
ART

인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대영박물관展>이 한국을 찾았다. 영국의 대영박물관에서 엄선한 작품 총 176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인간의 얼굴을 주제로 한 유물 및 회화작품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HUMAN IMAGE



- 1 여인 그림이 있는 점시
이탈리아, 1524년
- 2 판(Pan)의 대리석상
이탈리아, 기원전 45~25년
- 3 무명여인의 관뚜껑
이집트, 기원전 1000년경
- 4 하트르 여신의 부적
이집트, 기원전 1390~1325년
- 5 전시장 내부 풍경
- 6 헤라클레스와 아테나가 있는 암포라
그리스, 기원전 510~500년
- 7 푸른 쿠션이 있는 누드
프랑스(앙리 마티스 작), 1924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두상
이탈리아, 로마인 170~180년



대영박물관展

영원한 인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2015.12.11~2016.3.20 | 02-724-6326

책에서 보던 역사를 눈앞에 펼쳐다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이 '인간'을 주제로 한 전시로 한국을 찾았다. 인류 역사에서 예술이 시작된 이래 주요하게 탐구돼 온 '인간'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어떻게 넓히고 변화하는지 대영박물관의 방대한 컬렉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아름다움 ▶개인 ▶신 ▶권력 ▶변신 ▶사랑 등 총 여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선 다양한 예술품 속에 담긴 인간의 모습을 조명한다. 전시는 총 176점의 작품으로 꾸며지는데, 가장 오래된 유물인 8000년 전 신석기시대의 '석고를 바른 해골'부터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유물뿐 아니라 20세기 현대 컬렉션까지 시대별 핵심 작품으로 구성해 흡사 한국의 작은 대영박물관처럼 느껴진다.

한국 관람객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이집트 유물은 미라 관, 이시스 여신상, 아문-라 조각상 등 총 13점이 전시된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는 유물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위해 유물장 25개를 특별히 제작했는데, 유물장 제작에만 4억원이 들었다는 후문. 또한 기원전 500년경 제작된 그리스 도자기 '헤라클레스와 아테나가 있는 암포라', 170년경 만들어진 로마 황제의 조각상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두상' 등도 만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영박물관 회화 작품 컬렉션과 그간 공개되지 않은 렘브란트, 뒤러, 마티스, 피카소의 드로잉을 선보여 관람객의 폭넓은 예술적 감상을 돕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난 3년간 기획과 작품 선정을 거쳐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는 순회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인류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3월까지 만나볼 수 있다.